

현장보고서

# 날마다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

혼혈 ‘인’을 만나다

박경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기지촌 여성인권단체 ‘두레방’은 2003 년 5 월부터 11 월까지 7 개월 동안 국내 거주 혼혈인 50 명을 상대로 ‘혼혈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혼혈인의 42.2%가 피부색 등으로 인한 교육, 고용, 혼인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차별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혼혈인의 73.3%는 학창 시절 피부색으로 인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들 중 64.4%는 이로 인해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44.4%는 고용에서 차별을, 37.8%는 이성교제와 결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사회적 차별과 빈곤으로 인해 혼혈인들은 심각한 무기력과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다. 한국혼혈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혼혈인은 500 여 명으로 추산된다.

사진제공 | 두레방

## 1

두레방 센터<sup>1</sup>에서 10 년 전 찍었던 사진 한 장을 찾았다.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사진에는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와는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 즉 혼혈아들이 사진 속에 있었다. 지금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없지만, 10 년 전만 해도 두레방에는 혼혈아들이 많았다고 한다. 사진 외에도 나는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sup>2</sup>를 만들면서 이곳 기지촌 여성들의 기억 속에서 혼혈아를 만날 수 있었다.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기지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졌고, 미국행을 약속하는 징표였다. 그러나 그 기억 속의 아이들은 미군에 의해 대부분 버려졌고, 어쩔 수 없이 고아가 되어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입양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동거할 때는 이 남자가 나를 미국에 데려갈 거라고 믿는 경우가 100%였지.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야. 그 당시에는 믿을 사람이 미군밖에 없었지. 용돈주고 하나까. 데려간다고 하고 또 아이도 낳으라고 그래. 또 살다보면 정들잖아. 또 아이 낳아 미국에 데려간다고 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지. 체류기간을 1 년 연장한다고 하면서 속였지. 근데 연장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한 기지촌 여성

혼혈인들은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1945 년 이후부터 태어나기 시작하였다. 우리에게겐 항상 전쟁고아와 미군의 사생아, 양색시의 자녀 등 혼혈 ‘아’, 즉 아동으로만 표상되어 있는 혼혈인들은 실상 60 년간 쌓아온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진과 기억 속의 혼혈인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한국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지독한 부계혈통 사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혼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 작업은 단지 사진과 기억 속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인종차별과 군사주의를 짚어볼 수 있는 현장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60 년 동안 쌓여 있었던 이야기를 들춰내기란 생각 이상의 고통이 뒤따랐다. 조사에 참가할 때 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랐으며,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 비록 두레방이 과거에 혼혈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없는 터에 두레방 또한 혼혈인 사회에서는 외부인에 지나지 않았다. 예상은 했지만, 실상 혼혈인들은 한국 사회로부터 더욱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다. 게다가 혼혈인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이들을 만나기도 힘들었다. 즉 숨어 사는 사람과 혼혈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사는 이들을 찾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설령 찾았다 해도 조사에 응해줄지 아닐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사라 할지라도 자신을 공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인터뷰에 응하진 못할 일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조사는 자칫 ‘아웃팅(outing)’<sup>3</sup>의 위험마저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인권 조사는 신중한 개입이 필요했으며, 끈질긴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이 작업은 새로운 신뢰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익명을 보장한다 해도 모든 작업들은 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들의 입장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조사 과정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닌 수동적인 태도로 혼혈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찌면 조사팀만의 주관적인 태도일지 모른다. 이들에게는 방법이 어찌됐든 외부에서 자신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타인일 뿐, 특별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아무리 외부인에 불과할지라도 17 년간 한 장소에서 활동했던 두레방이 있었기에 혼혈인들의 삶에 개입하기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혼혈인 문제를 어떤 ‘지속적인 활동’으로 여기게 만드는 문제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현장 단체의 힘이면서 동시에 현장 활동의 어려운 점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마치 혼혈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다.

혼혈인들을 만났을 때 ‘조사는 해서 뭐 하나?’,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문제아, 불우이웃 등으로만 살아와서인지

이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였다. ‘가오리’, ‘엽전’ 등으로 부르거나, 폭언과 위협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치 자신을 위해 내가 어디까지 참아 낼 수 있는지 시험이라도 하듯 말이다. 아마도 지난 50 년 동안 혼혈인 지원을 약속하며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동안 혼혈인들은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사진 촬영과 연구논문의 대상이 되어 주었다.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 방송 출연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치가들은 선거 때와 6·25 전쟁 기념일(?)이 되면 몰려와 혼혈인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흔쾌히 하곤 했다. 그러나 50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혼혈인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선심성 지원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 또한 그러한 부류 중 하나로 보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어쨌든, 한참을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직접 이들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다. 시험을 치르듯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난 뒤 조금씩 혼혈인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 2

처음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주로 학교, 관공서, 노동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에 집중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 속에 살고 있는 혼혈인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의 차별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개는 사람들의 시선과 주관적인 느낌에 의한 차별과 편견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시선이 폭력적이라면, 그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라면, 차별을 더 넓은 의미에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었다.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으로써 ‘차별’만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그것이 폭력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의 영향으로 그들은 일찌감치 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정책에 이르기까지 혼혈인에 대한 모든 문제는 바로 ‘분리’에서 시작되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혼혈인들은 일상적으로 배제되며 항상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을 들어야 한다. 그 의도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한국인이면서도 이방인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만약 어쩌다 한번 있는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말을 들어야 하고 매순간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들에게 ‘삶’이란 곧 투쟁의 연속으로 느껴지게 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을성을 갖기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느낌. 사람들의 느낌.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데서 느끼는 것. 여기가 불안하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대인공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눈총을 받으니까. 어디 가서 술을 먹든 밥을 먹든 사람들과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허공에 대고 술을 마신다고요.

—40 대 혼혈 남성

반복되고 누적된 차별의 경험은 혼혈인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 주관적인 차별 또는 간접적인 차별 등은 혼혈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분리시키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원인이었다. 정부의 배려(?)로 혼혈인들은 미국에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대략 3 만 명<sup>5</sup>~5 만 명가량의 혼혈인들이 태어났지만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 500 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혼혈인에 대한 국가정책 중 가장 첫 번째 시행된 것은 바로 해외입양이었다. 정부는 혼혈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입양을 위해선 가족이 있어도 고아가 되어 줄줄이 ‘아버지의 나라’로 떠나야 했다. 출생과 함께 예고된 차별과 편견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전략과 국가의 이해가 맞물려 수많은 혼혈인들이 떠나고 없었다. 혼혈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에 못간 아이들은 고아로 떠돌다가 사고로 죽거나, 알코올 중독, 자살 등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남성 혼혈인들은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와 부(父)의 가(家)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sup>6</sup>의 경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1970 년 10 월 9 일자 《조선일보》에는 혼혈인들의 직업교육과 해외이주를 위해 국방부와 병역 면제를 협의 중이라는 기사<sup>7</sup>가 실려 있다. 혼혈인 병역면제가 해외입양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해외입양처럼 병역면제도 혼혈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이주를 위한, 달리 말해 분리를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는 그 맥락이 비슷하다. 특히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의 기준이 어떠한 객관적 기준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흑인계라면, 외관상 더욱 명백하다고 봐야 하는가?

이들은 학교에서 일찌감치 왕따를 경험해야 했다. 운 좋은 혼혈인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 끝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혼혈인은 ‘양키 새끼’라는 말을 들으며 학교를 다녀야 했다. 심지어 문제 학생으로 찍혀 항상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사소한 잘못도 가중처벌이 되었다. 어떤 선생은 혼혈아에게 블랙마켓(미군 면세품 장사)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놀림과 따돌림, 폭력과 폭언은 혼혈인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 처음부터 위험인물(불우한 성장 과정으로 인해)로 낙인찍혀 취업이 거절되었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는 ‘외국인은 받지 않는다’며 채용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었다. 요컨대, 학교에서 시작된 차별은 취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혼혈인들은 빈곤의 문제를 겪어야 한다. 다른 피부색과 출생 배경은 빈곤을 재생산시키며, 혼혈인의 문제를 다층적인 모순과 섞이게 한다. 기회의 평등조차 없이 차별과 배제에서 시작한 혼혈인들은 한국 사회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어릴 때는 그런 거 때문에 학교를 많이 안 갔죠. 푸샵을 하면 잡종도 푸샵하냐고 그러고, 대들었다고 매 맞고, 학교 다닐 때 양키니, 아이노꾸니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11 살 넘어서는 거의 안 갔어요. (질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냥 학교 안 가는 걸로 때웠죠.

—40 대 혼혈 남성

제도 속으로 진입하지 못한 혼혈인들은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하였다. 그렇게 누적된 차별과 가중화된 빈곤의 문제는 무기력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출생과 생김새에 의한 차별은 심각한 심리적 장애마저 야기하고 있었다. 50 년간 누적된 차별과 분리의 경험은 자신의 삶의 위치를 항상 칼날 끝에 위치시키며 극단적인 선택 속에서 자신을 확대하기에 이른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 누적된 차별 경험은 상황에 따라 쉽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농담이 원인이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비록 비혼혈 한국인들에겐 농담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혼혈인들은 매일매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일이 대응하고 살아야 한다. 이게 싫다면 혼혈인들은 격리된 삶을 선택한다.

어렸을 때부터 놀림 많이 받아서 한국에서 살려면 강해져야 한다. 사나워져야 한다. 뭘 하려고 해도 너는 안 돼, 그런 게 많으니까. 인종차별 그런 걸 되게 많이 당한다. 잡종이다, 너 이런저런 피가 다 섞였으니까 더럽다.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덤탕이 썩우고, 그러다 보니 계속 나빠진다. 근데 혼혈인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나빠지고…….

—10 대 혼혈 여성

심지어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혼혈인들은 배제되었다. 시위 도중 불행히도 혼혈인이 그곳을 지나가면, ‘양키 고 홈!’을 들어야 했다. 이런 경험은 사회운동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운동에서조차 혼혈인들은 그저 생김새에 따라 양키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리의 경험은 혼혈인들에게 심각한 자아 존중감의 상처를 입히며, 항상 한국 사회를 의심과 불편한 공간으로 느끼게 한다.

내 이빨이 다 틀니인데, 전두환 때 대학생한테 양놈으로 오해받아서 맞았어. 대학교 앞을 지금도 못 지나가. 나도 전쟁 반대하지만은,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나는 젊은 애들 많이 모이는 데 가려면 꺼림칙해요. 한두 명 같으면 모르는데 내가 나이가 육십인데 당할 재주 있어? 지나다니는 게 싫어.

—60 대 혼혈 남성

미군 반대 시위를 하는 곳을 제 친구 혼혈애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양키다 하고 막 몰려가서 그 친구가 엄청 맞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친구 입에서 ‘한국 사람이에요, 나 미국 사람 아니에요’라고 한국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뭘야 튀기네’ 하고 쓱 가더라고요.

—20 대 혼혈 남성

### 3

혼혈인들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열등의식을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혼혈인)들은 한국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혼혈인으로써 생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불쌍하지도 않았으며, 선량하지도 않았고, 교활하거나 폭력적이기만 한 문제아들도 아니었다. 항상 외부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고 규정되는 사람들이었다. 만일 혼혈인을 보는 시선이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만 있다면, 우리가 보는 혼혈인들은 불쌍하거나 착한 혼혈인, 아니면 교활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사회에 적응했을 것이다. 요컨대 혼혈인들은 외부의 극단적인 시선 속에서 둘 중 하나의 성격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 선택한 성격은 이중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보여질 뿐, 실제 이들의 성격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찰자 또한 이중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내가 보려는 것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는 이들과 차이를 느꼈고, 혼혈인들은 시선을 주고받는 인터뷰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다른 문제도 그렇듯이, 우리는 혼혈인 문제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기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이들의 삶의 방식이나 생존전략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혼혈인 인터뷰는 생각했던 것 이상의 힘이 들었다. 혼혈인을 만나기 위해서 산 속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거나, 기지촌 근처 쓰레기장을 배회하는 홈리스(Homeless) 혼혈인을 찾으러 새벽 잠복근무(?)도 해야 했다. 어쩔 때 영화에서나 보던 조직 폭력배들도 친견해야 했으며, 농사로 바쁜 혼혈인을 위해 과거 대학 시절 농활의 경험을 십분 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몸의 수고보다도 인터뷰를 힘들게 했던 것은 ‘관계’의 문제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한 혼혈인이었는데, 그를 주위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인터뷰 당일 그 분이 공사장에서 다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조사팀이 그분의 산업재해보상을 위해 뛰어다니는 적이 있었다.

이후 그는 조사원에게 친밀한 관계를 요구해 왔고 투정을 부리듯 매일 전화를 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 부리기를 반복했다.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지 않았던 사회와 사람들에게 원망이라도 하듯이 두레방에 많은 것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인권을 위한 조사는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특히 나처럼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어떤 지원하는 것이 이들에게 좋은 일인지 알기 힘들었다. 이들 앞에서 나처럼 학교와 중산층(?) 가정에만 갇혀 있었던 조사원들에게 기지촌 여성과 아이들의 삶은 ‘낯섦’ 자체였다.

또한 나는 학습된 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삶의 모순에만 집중하였다. 10년 전 두레방에서 찍었다는 혼혈아들의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사진 한 장은 나에게 이내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을 찾아보겠다는 가담창은 포부만이 앞섰다. 사진은 그저 아이들의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나의 감각은 그 웃음을 ‘해석’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각인하며, 웬지 역설적인 불행한 미소로 받아들였었다. 나에게서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할까?’가 주된 관심사였고, 그들을 한국 사회의 모순을 체험하는 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현장에서의 경험이라면 반드시 가슴 찡한 무언가를 느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현장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현장 활동은 강박적인 태도에서 시작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모습을 보기 위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2002 년 미군 장갑차 사건의 미선이, 효순이 사진처럼 ‘사회변혁을 위한 자극!’, 그것이 필요했다. 대상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비록 정치적인 입장이 어떻든 상관없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대상과 관찰자인 나의 관계를 숨기는 역할을 하였다. 재현의 과정에서 항상 나는 위에 있었고,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을 때 영상이나 글로 재현된 그들의 모습은 의미가 없어 보였다.

현장 경험이 없는 나에게 현장과 나와 ‘관계’의 문제는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런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혼혈인 문제를 글로 발표하자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혼혈 인권 실태조사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이 있다. 그러나 인권이란 주제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란 결국 막연하지만 다른 신뢰 관계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대상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활동은 자칫 이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결국 나와는 다른 삶의 공간과 방식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이제 시작인 마당에 두서없이 혼혈인 문제만 급하게 열거한 것 같아 오히려 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선다.

## 필자 소개

박경태 두레방 혼혈인 인권 실태 조사 연구원, 기지촌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감독,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수료. pktae121@hanmail.net

## 주

- 1) 두레방은 소외되고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단체이다.
- 2) 기지촌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 감독 박경태, 프로듀서 김환태, 제작 두레방·다큐이야기(2003).
- 3)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이 공개되는 것.
- 4) 혼혈인을 차별하는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는 말.
- 5) 혼혈인의 인구학적 수는 추정치에 근거한다. 기지촌 출신 또는 미군에 의한 강간에 의해 출생한 경우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증언에 의하면 미군이 직접 데리고 가거나

국제결혼 등의 경우로 인해 공식적인 자료에서 빠진 혼혈아들이 많다고 한다.

《보건사회통계연보》(1955~1972년)를 보면 공식적으로 입양된 혼혈인들은 3,956명 정도에 불과하다.

6) 병역법 시행령 제 136 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 1 항 제 2 호 나목.

7) “보건사회부는 우리사회에 적응키 어려운 혼혈아 전원에게 직업보도교육을 시켜 해외이주 또는 해외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남자 혼혈아는 모두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데, 이 문제는 보사부와 국방부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1970. 10. 9).